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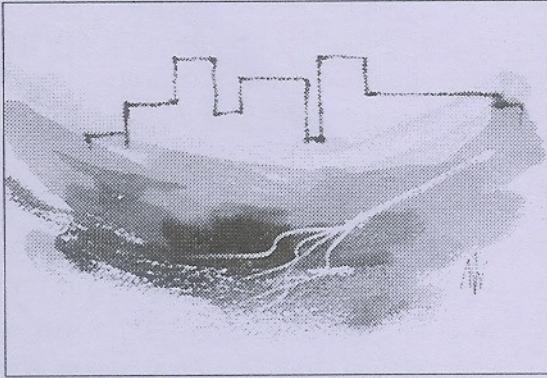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

제29권 16호(나해) 2009 · 3 · 15

[묵상]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

시편(122장)의 저자는 노래했다.

“주님의 집으로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예수님의 발걸음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섰을 때 기쁨이 사라졌다.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을 만나 기도하는 곳,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상흔들로 뒤덮여 있었다.

제사에 쓰일 동물들을 사고파는 인파들

성전세금을 위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

동물들 울음소리와 동전 뱅그랑거리는 소리들

홍정과 경매를 부르짖는 사람들 소리

거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속임수와 바가지 소리들...

채찍을 손에 드신 주님, 상판을 둘러엎으신다.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다.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신약의 성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자,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7)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미사 (레지오) 저녁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엄은섭 도로테오, 차정진 마리아 (생)이정훈 안셀모와 도미니카, 유진 대건 안드레아와 유미 올리아, 성낙호 요셉과 은혜 설비아 가정, 장현숙 발바라, 홍 관
주 일 낮 미사	(연)김수환 추기경,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차정진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 최건 바실리오 (생)오진 베드로, 정애나 세라피나, 김 스텔라, 최조앤 가브리엘라, 이재숙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와 혜선 안젤라 가정, 토런스 서 3반 가족들, 조옥중 사도 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0,1-17<또는 20,1-3.7-8.12-17>

- 화답송**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전례서가 65, 사순 제3주일 나해>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주고, 주님의 법은 건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도다.◎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시니 눈을 밝혀주도다.◎
○주님을 경외함은 순전하니 영원히 남고, 주님의 판단은 참다우니 모두가 다 옳도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달도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22-25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복음 요한(John) 2,13-25

영성제송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0	151
봉헌	261	261,233
성체	303	283,298
파견	157	154

25.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웃과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야 한다. 곧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농어촌 생산자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도시 소비자는 농어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보장받도록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농어촌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족끼리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던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임을 깨닫고, 형제적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에도 한몫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과 여과되지 않은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를 정화하여 인격을 닦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윤 추구와 능률주의와 업적주의의 그늘에서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버림받은 아이들과 노인들, 미혼모와 매춘 여성들, 불의하게 천대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모든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펴는 데 앞장 서야 한다.

▶ 정의로운 사회 실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는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평등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병폐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사회가 주는 것도 아니며 법률이나 관습이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인간 권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유린하거나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정치 제도나 사회적 관행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일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현세 질서에 붙여넣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자들이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수호할 때 그 권위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CBCK 제공 - 계속)

만나려는 하느님과 만나야 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요 구심점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날마다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봉헌했으며 공동으로 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사도 3,1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대 축제인 파스카 축제, 오순절 축제, 초막 축제를 거행하며 한 해를 지냈는데 그때 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행해 왔던 그 축제들은 한결같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거행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소중한 장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받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의식을 준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성전 의식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단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고하시며 성전이 더 이상 장사꾼들의 상거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난날 스승께서 보여주신 성전에서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경신례가 거행될 바로 그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받은 장소인 성전이 상업주의에 물든 인간들에 의해서 더 이

상 훼손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나이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하느님이셨다면, 신약 백성의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전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현존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된다”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당신의 몸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경고 말씀과 계시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가 빚어낸 신을 섬기고픈 인간적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만 합니다. 동시에 나약한 본성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온 우리의 왜곡된 삶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식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야 할 하느님이 만나고픈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김금자 데레사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지혜 수산나	정미영 미카엘라	이호미 엘리사벳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사순 제3주일입니다.

신자들은 사순 기간 동안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며 .
계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극기와 절제의 생활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 사순 피정

- 사도 바오로 서간 통독 : 준비물-성경, 색연필 한자루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 특강 '살아있는 신앙생활' : 3월27일(금) 오후 7시30분
강사 : 김정희 루치아 수녀(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 전 신자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사순 제3주일(3월20일): 토런스북/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4주일(3월27일) : 특강입니다.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3일) : P.V. 구역

◆ 백삼위 본당 사순 판공성사 4월1일(수)

-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주일학교는 강당에서 합니다.)
- 오후 8시부터 : 고해성사
- 어르신을 위한 판공성사 : 3월29일 주일과 4월5일 주일
에 미리 드립니다.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시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9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백삼위 레지오 마리에 꾸리아 창단 준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5일) 낮미사 후 오후 1시30분, 강당
- 각 프레스디움 간부는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 자모회의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강습

- 일시 : 3월21일(토) 오후 2시, 강당
- 강사 : 윤두형 유스티나(P.V.2반)
- 문의 : 김문선 미리암 ☎(213)369-0288
- 회비는 없으며, 강습 후 시식회가 있습니다.

◆ LA 대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성체성혈 분배자 정기교육

- 일시 : 3월29(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교육대상 : 전례부원, 성체성혈 분배봉사자(환자방문
봉성체 포함), 독서자, 복사
- 교육이수자 : LA대교구 발행 Certificate을 받게됩니다.
- 문의 : 전례연구위원장 김정웅 요한 ☎(310)720-8240

◆ 견진성사 교육 일정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
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오.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남가주 M.E. 제63차 첫주말

- 일시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2009년 올해는 본당의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의
해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값 : \$20(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5일(주일) : 하버/카슨 2반(설령탕 \$3)
- 3월22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김광일	김기정	김병조	김병태
	김양금	김영경	김옥보	김 옥	김윤진	김일선
	김정렬	김정순	김정희	김중훈	김현숙	김형순
	나경흠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충한	민성원
	민소예	민찬기	박광자	박재철	박희자	배기엽
	배진영	원건희	유경자	유선식	유희연	윤석구
	이경용	이민상	이상용	이연행	이용식	이인석
	임연조	임현기	장수창	장영진	정병훈	정상봉
	주대중	차병용	최상만	최의수	한혜숙	홍숙자
	신영웨버	영희가보라	박제이콥	합계 : \$5,660		
	미사헌금 : \$3,088.50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김기정	김병조	김병태	김양금
	김옥보	김 옥	김윤진	김일선	김정순	김정희
	김현숙	김형순	나경흠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충한	민소예	민찬기	박광자	박재철	박희자
	배기엽	배진영	원건희	유경자	유선식	유희연
	이경용	이민상	이상용	이용식	이인석	임현기
	장수창	정상봉	주대중	차병용	최상만	최의수
	한혜숙	홍숙자	영희가보라	박제이콥	합계 : \$4,471.34	
	감사헌금 : 정순석 유지숙					

- ◆ 배론 청년회/주일학교 사순피정 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백삼위 배론청년회와 주일학교 7~12학년 학생들이 13일 (금)부터 오늘 주일(15일)까지 데미쿨라 꽃동네에서 사순 피정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장래를 짊어질 이들 젊은이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본당 신부님께서 피정을 지도하시는 동안 예수고난회의 김두진 바오로 신부님께서 특전미사와 주일 아침/낮 미사를 집전해주십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오늘 주일(15일) 학생미사후 강당
 - 대상 : 초등부와 피정에 참가하지 않은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모는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신청 : 3월29일(주일)까지 *신청비 : \$10

남가주 소식

-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제5차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20일(금) 낮 12시30분(Shotgun Start)
 - 장소 :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CCC) * 참가비 : \$100
 - 문의 : 정율리아 ☎(310)404-1607, (213)389-4612
- ◆ 미주 가톨릭 농아 선교회 매월 '수화 미사' 시작
- 가톨릭신자 농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미사가 매월 3번째 토요일(특전미사) 성 마리아 성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수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7시30분(첫미사 3월21일)
 - 장소 : 성 마리아 성당(2035 Otterbein Av. Rowland Hight, CA 91748) ☎(626)839-6406
-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봉헌 및 봉헌 갱신식
- 일시 : 3월25(월)오후 7시, LA 성 바실 성당
 - 주례 : 김재섭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
 - 주최 :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서부 평의회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꾸리아
-------	-----

다음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마태오 & 안젤라 972-8292 3/20(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요아킴 & 안나 530-7702 3/21(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 218-7824	한길선레 스펠라스타카 782-1025 3/20(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인식 토마스 953-9597 3/22(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신알베르토 424-558-4223 3/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기숙 엘리사벳 318-5079 3/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이석진 가브리엘 326-5867 3/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3/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3/13(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3/6(금) 오후 7시,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3/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3/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오현희 골롬바 265-0793 3/12(목)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필레몬서 - 옥중에서 얻은 아들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부탁함 ◎

필레몬서는 사도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로서 필리피서, 에페소서 및 콜로새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라 한다. 옥중서간이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필레몬서는 바오로 서간들 가운데 단 하나 뿐인 사신(私信)으로서 ‘서간’, ‘편지’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나 짧은 편지이다. 신약성경에서 유다서와 더불어 단 1장으로 작성되었으며, 둘 다 25절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서간은 인간애를 물씬 풍기는 바오로의 개인적 서신이다. 서간의 일차 수신인은 필레몬이라는 한 인물이지만 아피아 자매와 아르키포스, 그리고 필레몬 집에 모이는 ‘교회’가 공동 수신자이다. 따라서 필레몬서는 개인적 서간이지만 동시에 ‘작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 비록 편지의 성격이 한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선포의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이 짧은 편지가 경전(經典)으로 성경목록 안에 들어있는 이유이다.

◇ 집필 배경과 시기: 학자들이 유추하는 집필 배경은 이렇다. 소아시아의 콜로새 공동체에는 필레몬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스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오로를 찾아왔다. 아마 바오로가 필레몬 집을 방문했을 때 대면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바오로를 만난 오네시모스는 회개하였고, 바오로를 가까이서 시중들었으며 바오로는 그를 ‘옥중에서 얻은 아들’(1,10)로 여긴다. 그런데 바오로는 오네시모를 마냥 곁에 두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로마제국 노예법에 따르면 노예가 도망치면 주인은 그를 엄벌에 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예를 도망치도록 도와준 이도 재산권 침해로 범죄의 공범이 됐다고 한다. 따라서 바오로는 오네시모스가 언제 주인에게 고발당할지 모르고, 자신 또한 공범자로 몰려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네시모스를 주인인 필레몬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1,16)로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된 것이다.

집필 장소와 관련해서 바오로가 로마와 카이사리아에서 투옥된 적이 있는데다가 편지에서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수인까지 된 몸”이라는 서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로마 또는 카이사리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집필 시기는 바오로가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카이사리아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던 시기(58~60년), 또는 로마로 압송된 후(61년) 쫓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투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집필 장소가 에페소이고, 집필 시기는 필리피서를 썼던 시기와 비슷한 55년 또는 56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 주요 내용과 특징: 단 25절에 불과한 짧은 분량으로서 내용은 오네시모스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서간들과 같이 인사(1-3), 감사와 간구(4-7), 구체적인 사연(8-21),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강복(22-25)의 정형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다른 서간들에서 볼 수 있는 강한 권고나 주장 같은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오히려 청원의 애절함이 편지 전체에 흐르고 있다. 불같고 강직한 성격의 바오로에게 이런 유순한 인간적 면모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오네시모스의 주인인 필레몬에 대한 정중하고 겸손한 청, 그리고 늙어서, 그것도 ‘옥중에서 얻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뽐낸 편지이다.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은 희랍어[Onesimos]에서 왔는데 그 뜻은 ‘유익한 사람’이다. 이 오네시모스(유익한 자)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써 이름값을 못했으나,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11절), 즉 유익한 자가 되어 이름값을 하게 되었으니 바오로 자신을 맞아들이듯 오네시모스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복음을 통하여 당시 노예제도 폐지하려는 바오로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창훈 기자]